

스칸디나비아의 民俗衣裳에 관한 研究

元 美 香* · 俞 泰 順

*大丘曉聖가톨릭大學校大學院 衣類學科 博士過程, 大丘曉聖가톨릭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Folk Costume of the Scandinavia

Won, Mee Hyang* and Yoo, Tai Soon

D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eagu-Hyousung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eagu-Hyousung

Abstract

Scandinavia consists of Norway, Sweden, Denmark, Finland, Iceland and Lapland, all linked by historical and geographical ties. In this respe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clarify the folk costume of the Scandinavia.

Scandinavia many skilled handicrafts are practised, such as leatherwork, silverwork and embroidery. The most popular colours are yellow, blues, reds, greens and white.

For women the costume consist of a blouse with a bodice, skirt and apron, over which is worn a jacket or shawl, accompanied by a headdress. Their accessories may be jewellery, belts, kerchiefs and separate pockets. For the men, the costume is a shirt, trousers or breeches, worn with a waistcoat and jacket, neck scarf, and topped with a hat or cap. And the Lapps, both men and women, wear woollen shirts beneath their blue-skirted tunics, and blue trousers. It is one of the most ancient of the costumes worn in western Europe, due to its total suitability to their way of life.

I. 서 론

문화는 동태적인 것으로 정치, 사회구조, 신앙, 기술, 경제 등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문화요소들이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계속해 나가는 '문화과정(culture process)'을 거친다. 한 사회의 문화요소들이 다른 사회로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과정에 통합되어 정착하는 문화의 '전파(diffusion)'나, 상이한 두 사회 또는 여러 사회 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므로써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문화접변(acculturation)'도 있게 된다.¹⁾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면 그 결과 그들 사회의 문화는 이를 반영하여 서로 공통

점이 있을 것이며, 또한 어느 집단이든간에 얼마만큼의 집단정체감(group identity)이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²⁾ 그들 고유의 문화를 계속 유지 전승한 서로의 차이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는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이라³⁾할 수 있으며, 그 집단의 의복은 문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민속의상은 한 민족 또는 국민의 특색을 나타내는 의식, 전통, 풍습, 풍속으로 전승되어진 고유의 의복이다.⁴⁾ 그러므로 민속의상은 그 문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는 로마의 플리니우스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그의 저서 '박물지'에 기록이 남겨졌다. 그러나 다만 그곳이 유럽의 북서부에 위치한다고 언급했을 뿐,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못했다. 스칸디나비아는 노

르웨이와 스웨덴이 점유하는 산이 많은 반도일 뿐이라는 지리학적 해석과, 일찍이 한 왕국으로 묶여 있던 오랜 역사를 지닌 세 왕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려고 하는 전통주의적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 명칭은 보다 광범위하게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5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다섯 나라는 종교적, 역사적, 지리적인 유대로 묶여 있으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 어떤 나라들의 그룹보다도 밀접하게 결합해 있다.⁵⁾

그리고 북노르웨이, 북스웨덴, 그리고 북핀란드의 북극과 아시아 북극지대에 걸쳐 풍부한 독자적 문화유산을 가진 토착 소수민족인 랩인이 약 5만명 살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스칸디나비아 사회에 편입되었지만 점점 더 강하게 고유의 문화, 고유의 언어, 그리고 영토권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다. 랩란드는 랩(Lapp) 혹은 사맥(Samek)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고향으로, 스칸디나비아에서 독립 국가로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랩족의 민속의상은 주변국가들의 민속의상과 구별되며 유럽 대부분의 민족들이 입고 있는 민속의상의 기초 형태로서의 완벽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⁶⁾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칸디나비아에 속하는 5개국과 랩란드의 민속의상을 비교 분석하여 밀접한 유대관계에 따른 민속의상에서의 유사점과 강한 민족의식을 가진 각 나라의 전통에서 오는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걸쳐 그들은 강한 국가적 긍지와 지역적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다. 민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도처에 국기가 나부끼고 있으며 심지어 페로 군도와 올란드 군도는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역의 깃발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스칸디나비아의 민속의상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칸디나비아에 속하는 나라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나라에서의 지역적인 차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구방법은 스칸디나비아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문헌과 민속복식에 관한 문헌, 그림,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 연구하였고, 본문에 제시된 그림은 현대적인 것보

다는 가장 전통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7,8)}

II. 지리·문화적 배경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반도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칸디나비아의 대부분의 지역은 그 위치가 북쪽으로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와 그와 함께 불어오는 서풍으로 비교적 온화한 겨울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부 지역은 동유럽 상공의 고기압권으로 보트니아만과 핀란드만의 해수를 얼게 해 스웨덴과 핀란드 북쪽의 겨울을 가장 춥게 만든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5개국은 종교적, 역사적, 지리적인 유대로 묶여 있으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 어떤 나라들의 그룹보다도 밀접하게 결합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1397년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여왕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과 그 속령인 아이슬란드와 핀란드를 합쳐서 칼마르 연합왕국을 세워 북유럽 5개국은 100여년동안 하나로 통합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스칸디나비아 국경 내부에서 이루어진 기능상의 통합 형태는 세계에서도 괄목할만하며, 1962년 헬싱키 협정에 의해 북유럽의 이 5개국-이들은 자기들의 공동체적인 존재를 노르덴(Norden)이라 표현-은 법률, 문화, 사회, 경제분야에서 협력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뜻한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세계는 춥고 신비에 가득 찬 영역이었다. 스칸디나비아의 호박이 로마의 금은 제품과 화폐와 기타 사치품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6, 7, 8세기에 스칸디나비아의 장인들은 훌륭한 금장식품과 펜던트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로마 주화의 모방품과 청동제의 이상한 동물이나 뱀 또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디자인을 조각한 브로치나 줄무늬 세공품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9세기부터 11세기 중반까지는 바이킹의 시대로, 바이킹은 일반적으로 해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대하나 그들의 해상 약탈은 부분적인 현상이었으며, 실재는 당시 극도로 한랭한 기후 때문에 물자의 교류와 새로운 정

착지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징인 아름다운 맵시, 간결성, 뛰어난 솜씨는 이러한 바이킹시대의 공예와 민예에서 전해진 것이다.^{9,10)}

스칸디나비아인은 종교적으로는 루터교로 믿고 있으며, 덴마크인, 스웨덴인, 아이슬란드인, 노르웨이인은 밀접한 언어상의 유대 관계로 묶여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밀착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강한 친족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개인주의와 국가의 독립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강한 국가적 긍지를 각각 갖고 있기 때문이다.

III. 스칸디나비아 각 나라별 민속의상의 특징

1. 아이슬란드 (Iceland)

스칸디나비아 주변국의 다양한 의복형과는 대조적으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역마다의 차이가 거의 없다. 모직이 널리 이용되며, 염료를 만들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밝은 색상을 좋아하는 다른 북유럽인들과는 달리 검은색을 즐겨 입는 경향이 있다.¹¹⁾

나이트 여성은 흰색이나 유색의 블라우스에 소매가 달린 검은색 보디스에 길고 풍성한 검은색 스커트를 착용한다. 보디스는 황금색 끈으로 매거나 두 개의 금단추와 금브로치를 달고, 황금색과 녹색 자수장식이 있다. 스커트 둘레는 보통 잎사귀 모양의 곡선문양을 바이킹 선호의 금색으로 장식한다. 허리에는 황금색 사슬로 연결된 벨트를 착용하며, 여기에 칼과 혼인 여부를 알려주는 열쇠꾸러미를 단다. 아가씨는 소매가 없는 보디스와 검은색 스커트, 푸른색 혹은 체크 무늬의 커다란 에이프룬을 착용하기도 한다. 헤드드레스는 프리지안 스타일의 모자와 비슷한 위가 감겨 올라간 작은 흰 모자로 둘레에 금색띠가 있고 그 위에 흰색 베일을 쓰며, 견고한 가죽신을 신는다.

남성은 검은색의 무릎길이의 바지와 단추가 많이 부착된 하이 컷 조끼와 재킷을 착용하며, 검정 가죽신 위에 가죽각반을 찬다.¹²⁾

2. 핀란드 (Finland)

1917년 이전까지 800년 이상 덴마크, 스웨덴, 러시

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핀란드의 민속의상은 이러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다. 의상은 단순하지만 매우 아름다우며 줄무늬 천을 많이 사용한다. 줄무늬 천으로 만든 보디스와 스커트가 매우 대중적이며 그 착용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 녹색, 흰색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태양, 여름 하늘, 꽃, 초원, 숲, 핀란드가 자랑하는 호수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¹³⁾

여성은 흰색의 블라우스에 주름치마 혹은 점퍼 스커트를 입고 소매가 없는 보디스를 착용하며 수장식된 주머니를 허리 벨트에 부착하고, 머리에는 캡이나 스카프를 쓰거나 리본장식을 길게 하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 스커트나 에이프룬에 줄무늬가 있기도 하고 단색에 수장식이 있기도 하다. 전통적 디자인의 등근 은브로치는 태양송배를 반영하며 블라우스에 달거나 브로치 대신 은체인 목걸이를 걸친다. 대개 흰색이나 붉은색 스타킹과 함께 은버클이 달린 검정색 신을 신는다.^{14,15)}

남성은 스탠드 칼라의 흰색 셔츠에 은브로치를 목에 장식하고, 검은색이나 진한 푸른색의 짧은 바지나 긴 바지에 줄무늬 더블 조끼, 재킷을 착용하며 두 줄의 은단추나 동단추로 채운다. 흰색이나 붉은색 양말을 신고 두건이나 펠트모를 쓰며, 은버클이 달린 검은색 신발을 신는다.

2. 노르웨이 (Norway)

민속의상의 전통을 잘 유지한 나라로써 이미 소멸한 의상의 부흥이나 새 스타일 창작 운동도 있는데, 전통적 양식에 의거한 복원이나 재생에 조언을 주는 것과 그에 의해서 근거가 박약한 한때의 아이디어 창작품이 생기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민속의상 부흥을 위한 위원회가 1947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¹⁶⁾

중세스타일이 19세기초까지 잔존하다가 지금은 르네상스 스타일이 지배적이고, 노르웨이 의상은 매우 아름다우며, 주변국가들의 의상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통복식의 종류가 대단히 많아 여자복만 150여종에 이른다.

지형이 매우 까다로와 국내여행이 많이 제한되어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의상이 발전하였다. 특히 나라의 동서로 의복형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남부의 깊은 계곡과 서해안의 피요르드에 주로 현존하고 있다.¹⁷⁾

내륙부에는 해안 지역보다 색채의 배합에 있어 자유롭고, 해안에서는 검정과 흰색이 주조이며, 종종 빨강과 같은 밝은 색으로 변화를 주었다. 보디스가 대부분 무지인 덴마크, 스웨덴과는 달리 수를 놓았으며, 고대 바이킹 무늬, 눈 결정체를 확대시킨 듯한 느낌의 기하학적 무늬가 주를 이루고 바로크적 아칸다스 잎사귀를 수 놓기도 했다.¹⁸⁾

장신구나 머리 장식의 형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의복의 기본형은 거의 같다. 낚시 장식을 하던 것이 르네상스 이후 은세공의 발달로 낚시는 단추나 신발의 버클에만 잔존하는데, 서부 노르웨이가 은장식으로 특히 유명하다.

여성은 넉넉한 소매의 흰색 블라우스에 다채로운 가슴장식의 소매 없는 보디스를 입고 은브로치를 달았으며, 검정이나 푸른색의 스커트에 에어프린, 벨트를 하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은버클 장식의 신발을 신었다.

남성은 스탠딩 칼라의 흰색셔츠에 검은색이나 붉은색, 녹색의 보디스와 재킷을 입고 은브로치를 달고 무릎길이의 반바지에 양말을 신고 은버클 장식의 신발을 신었다.

4. 스웨덴 (Sweden)

전통복식은 대체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걸쳐서 그 양식을 확립했으며, 여기에 외부의 영향이 가미되어 다소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근본적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덴마크보다 더 단순한 스타일이며, 색상도 대개 단순하며 지방색 뿐 아니라 계절 색을 반영하여 푸른색, 붉은색, 녹색, 노란색, 검정색이 주를 이룬다.¹⁹⁾

국립교회의 지배적인 역할이 주민 생활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의복의 계절적인 변화나 옷을 갈아 입는 날은 교회의 행사와 결부되어 있으며, 주민의 복장 관습은 사제가 의장으로서 소집하는 교구의 회의에서 만든 규칙에 따라 지배 받았다.

여성은 금은 세공의 단추로 죄어진 접은 깃의 긴 소

매 블라우스를 은, 백랍의 아이렛을 통하여 끈으로 교차되게 묶으며, 레이스 장식된 빨간색이나 검정색의 보디스를 입고 자수나 줄무늬로 장식된 검정 스커트에 에이프린, 술장식된 꽃문양의 붉은 피슈 (fichu, 슐)를 걸치고, 큰 은브로치를 달고, 끈벨트를 하고 타원형의 장식 주머니를 달았다. 흰색 또는 붉은색의 니트 스타킹에 검정 가죽신을 신고 보닛형과 후드형의 캡을 쓴다.²⁰⁾

에이프린은 평상시나 보통 일요일에는 선명한 줄무늬를 하고 다른 교회의 축제때는 빨강, 초록, 푸른색 에이프린과 규정된 악세사리를 착용한다. 헤드드레스는 매우 단순하고 다양한 보닛이나 캡을 이용하여 뒤로 젖혀 착용하는데, 미혼은 뒤에 풍풍 장식이 있는 붉은색 보닛을, 기혼녀는 레이스 장식된 흰색의 언더캡 위에 헬멧형의 캡을 착용한다.²¹⁾

남성은 흰색의 긴 소매 셔츠에 금속단추로 앞을 고정시킨 붉은색, 녹색으로 허리부분의 셔츠가 보이도록 짧게 처리된 조끼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무릎에 붉은 끈이나 풍풍 장식된 어두운색의 반바지에 흰색 또는 푸른색 니트스타킹, 검정신을 신고 캡을 쓰고 있다. 남자 반바지 무릎 끈 등에 붙여진 빨간술 (Pompons) 과 짙은 색의 재킷에 붙이는 빨간 파이핑 장식이 특이하며 바지의 무릎 아랫 부분을 편물로 된 긴 스타킹속으로 집어 넣어 입는다.²²⁾

5. 덴마크 (Denmark)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 중 최초로 근대화되어 몇몇의 고립된 지방을 제외하고 민속의상이 거의 사라졌으나, 포크댄스 조직연맹의 보호하에 있는 포크댄스협회에 의하여 부흥됨으로써 착용되게 되었다.²³⁾

대체로 심플하고 매우 실용적이며,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헤드드레스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낸다. 대부분이 나폴레옹시대의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킷은 스펜서형 (spenser type)으로 레그 오브 머튼소매가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색상은 풍경과 계절적 감각을 반영시킨 녹색, 붉은색, 노란색이며, 대부분의 의상은 보디스와 스커트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만들어지지만 푸른색 보디스의 어두운 바탕에 붉은 줄무늬 또는

붉은색 바탕위에 노란색의 가는 줄무늬 같이 많은 변화가 있다. 색상으로 결혼의 유무도 알 수 있는데, 붉은색 스커트는 기혼녀나 나이든 여성이 입고, 녹색은 젊은 여성이 착용한다.^{24,25)}

여성은 흰색의 블라우스에 겹침 부분이 없이 고리로 고정하는 U자형으로 목선이 깊이 파인 보디스를 입고 모직의 무지 개더 스커트에 스커트 밑단까지 오는 길고 어두운 체크무늬의 에어프론을 하고, 머리에는 언더캡 위에 스카프를 둘러 묶는다. 블라우스는 흰색의 마직으로 앞 중앙 부분에 트임이 있어 머리를 뒤집어 쓰면서 입으며, 진동선과 옆선 모두 직선으로 재단된 통소매이며, 소매 아래 겨드랑이에는 사각천을 대각선으로 접어 두 장의 무를 만들어서 댄다.

남성은 스탠딩 칼라의 흰색 셔츠에 은단추로 장식된 줄무늬 조끼와 붉은 브레이드를 댄 청색 재킷을 입고 목에는 화려한 손수건을 묶었으며, 무릎아래를 밴드와 장식술로 고정된 짧은 바지에 장식술이 달린 붉은색 스타킹과 은버클의 검정 신발을 신고 캡을 쓴다.²⁶⁾

6. 랩란드 (Lapland)

랩인은 스칸디나비아의 북쪽 끝에 있는 랩란드를 중심으로 소련,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널리 분포하며, 아시아 계통의 민족으로 인종적으로 인접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고 독자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

으며 민속의상도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겨울에는 남녀 모두 모직 셔츠 위에 순록 가죽으로 만든 튜닉과 바지를 착용하고 가죽부츠를 신는다. 여름에는 푸른색 모직의 튜닉과 바지를 입고 앞창이 약간 올라간 모카신을 신는다. 여성은 좀 더 긴 튜닉을 착용하고 붉은색 모직 보닛을 쓰고, 밝은색의 에이프런과 솔도 착용한다. 겨울의 튜닉은 붉은색 브레이드로 장식하고, 여름용은 붉은색, 녹색, 노란색 브레이드로 장식을 한다.²⁷⁾

남녀 모두 튜닉 위에 폭넓은 가죽벨트를 하고 은장식단추를 달고 은버클로 채우며, 칼과 은제 주머니, 스푼, 바늘 등을 달고 있다. 붉은색과 노란색 무늬의 끈을 목에 둘러 앞으로 늘어뜨려 술기 위와 튜닉의 단주위에 대어 장식을 하는데, 이는 악령을 쫓는다는 오랜 관습이다.²⁸⁾

랩의상 중 특이한 형태로, 남성이 착용하는 '사방캡 (cap of the four winds)'은 상단 4곳이 뾰족한 별 형태이며 붉은색 풍뎉을 단 푸른색의 캡이다. 남녀 모두 두꺼운 병어리 장갑을 끼고 있다.

IV. 스칸디나비아의 민속의상 비교

스칸디나비아의 민속의상을 요약해 놓은 <그림 1> 과 <표 1>을 보면, 스칸디나비아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그림 1> 스칸디나비아의 민속의상

〈표 1〉 스칸디나비아의 민속의상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랩란드	
주색상	검정색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 녹색, 흰색	검정색, 흰색, 붉은색, 녹색,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 녹색, 노란색, 검정색	녹색,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소재	모직	모직, 면직	모직	모직	모직, 견직, 면직	가죽, 모직	
문양 자수	황금색과 녹색의 자수, 입사귀 모양	줄무늬	정교한자수 (아칸다스 입사귀, 장미수) 하링달 자수	줄무늬, 꽃무늬, 체크무늬	줄무늬, 체크무늬	무지	
벨트	황금색 사슬 또는 자수	은벨트	자수장식 벨트	브레이드 벨트 장식술을 늘어뜨린다.	밴드, 끈	가죽벨트	
신발	검정 가죽신	은장식이 있는 검정색 구두	은장식이 있는 검정색 구두	은장식이 있는 검정색 구두	은장식이 있는 검정색 구두	순록의 가죽신	
여성	블라우스	· 흰색, 유색 · 목둘레에 프릴 · 금장식	· 흰색 · 길고 헐렁한 소매 · 프릴장식 · 라운드 네크라인 · 작은 칼라가 달린 하이네크, 은브로치	· 흰색 · 넉넉하고 긴 소매 · 은 브로치	· 흰색 · 금은 세공의 단추 · 접은 깃의 긴소매 · 은브로치	· 흰색 · 마직 · 트임이 없다 · 진동선과 옆선 모두 직선 재단의 통소매 · 겨드랑이에 무	· 모직 셔츠
	보디스	· 검정색 · 황금색 끈으로 매거나 금브로치로 고정 · 황금색과 녹색 자수 장식	· 줄무늬 · 끈으로 묶거나 은단추로 여민다.	· 붉은색 · 다채로운 가슴수 장식 · 레이스 장식	· 붉은색, 검정색 · 앞쪽에 레이스 장식 · 은, 백납으로 된 작은 구멍으로 끈을 꿰어 묶는다.	· 흰색 · U자형으로 깊게 파인 목선 · 검침본 없이 고리로 고정 · 소매가 있는 것도 있다 (7부 소매).	· 튜닉형 겨울에는 순록가죽, 여름에는 모직, 브레이드 장식.
	스커트	· 검정색 · 입사귀 모양의 금색 가장자리 자수	· 줄무늬 · 종아리 길이	· 검정색, 푸른색 · 무릎길이, 발목길이 등 다양 · 짧은 더블스커트	· 검정색 · 자수나 줄무늬 장식 무릎길이	· 모직의 무지 개더스 커트 · 발목길이 · 무겁다. · 기혼은 붉은색, 미혼은 녹색	· 바지
	에어프런	· 검정색 · 미혼은 푸른색이나 체크무늬의 카다란형	· 무지 또는 수장식된 흰색 · 줄무늬	· 흰색, 검정색 · 정교한 수장식	· 푸른색 · 줄무늬 · 꽃무늬, 체크무늬 · 흰색 무지	· 자수장식된 흰색 · 체크무늬가 대중적 · 길고 넓은형	· 줄무늬 · 체크무늬
	쓰개류	위가 감겨 올라간 작은 흰 모자를 쓰고 흰 베일을 쓴다 검정색 벨벳 두건	레이스를 댄 보닛, 리본장식	기혼은 빗어 넘기고, 미혼은 작은 캡이나 보닛. 단순한 밴드장식	단순하고 다양한 보닛이나 캡. 미혼은 붉은색, 기혼은 흰색, · 붉은색	무지 보닛, 미혼은 흰색, 기혼은 검정색	· 붉은색 보닛
	스타킹		· 흰색	· 검정색	· 붉은색	· 장식술이 달린 붉은색	
장신구	황금색 사슬벨트에 기혼을 의미하는 열쇠 꾸러미 부착	은브로치 은제사슬목걸이 수장식된 주머니를 벨트에 부착	은브로치 포켓이나 백을 은으로 혹은 벨트에 부착	은브로치 붉은색에 꽃무늬가 있는 피슈, 흰색피슈, 벨트에 손가락 부착	체크무늬의 작은소울 (붉은색-기쁨, 푸른색-슬픔)	붉은색, 노란색무늬의 끈장식, 칼을 벨트에 부착, 피슈	
남성	셔츠	· 작은 스카프를 목에 묶는다.	· 흰색 · 스탠딩 칼라 · 은브로치	· 흰색 · 스탠딩 칼라 · 은브로치	· 흰색	· 흰색 · 스탠딩칼라	· 모직셔츠
	조끼	· 검정색 · 은단추 · 하이네크	· 줄무늬, 무지 · 더블형과 여밈이 없는 형 · 두줄의 은, 동 단추	· 검정색, 붉은색, 녹색 · 두줄의 은, 동단추	· 붉은색, 녹색 줄무늬 · 금속 단추 · 허리부분의 셔츠가 보이도록 짧게 처리	· 줄무늬 · 은단추	· 튜닉형 · 여성용보다 짧다.
	재킷	· 검정색 · 은단추 장식	· 검정, 브라운 · 더블형 · 스탠딩 칼라	· 검정색 수를 놓은 흰색 재킷 · 붉은색, 노란색, 녹색수의 짧은 노동복 형태	· 검정색 · 붉은색 파이핑 장식	· 푸른색 · 붉은색 브레이드 장식 · 은단추 · 칼라부분을 화려한 손수건으로 묶는다.	
	바지	· 검정색 · 무릎길이 · 무릎에 술장식	· 검정색, 진한 푸른색 · 무릎 길이 또는 발목 길이	· 검정색 · 무릎길이 · 유색의 브레이드로 무릎 아래를 고정	· 노란색, 진한 푸른색 · 무릎길이 · 무릎아래에 붉은색 브레이드와 풍풍장식	· 노란색, 흰색, 검정색 · 무릎길이 · 무릎아래에 밴드와 술장식	· 순록가죽, 모직 바지
	쓰개류	· 모직 스쿨캡	· 검정색 펠트모자	· 검정색 햇	· 브레이드 장식된 붉은색, 푸른색, 검정색 캡	· 장식술이 달린 붉은색 스타킹캡	· 사방캡 붉은 풍풍장식이 달린 푸른색 캡
	스타킹	· 가죽 각반	· 붉은색	· 특수한 무늬가 있는 흰색	· 흰색, 푸른색	· 흰색	

주색상은 우주, 공기, 불, 물을 의미하는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흰색과 자연색인 녹색, 검정색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류의 초기 장식의 형태인 바디 페인팅에서 주로 사용되어진 색상들로²⁹⁾ 이것이 민속의상의 색상으로 연결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재는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보온성이 좋은 모직이 사용되었으며, 자수는 네크라인, 커프스, 소매 가장자리, 치마단 등에 공통적으로 장식되었으나 그 자수의 문양은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좀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스타킹이나 양말의 끝이나 솔기, 모자에 자수나 끈 실, 풍풍장식을 하고 있다. 6세기경 로마의 영향으로 발달된 은 세공품과 줄무늬는 민속의상에 그대로 남아 태양을 상징하는 은브로치나, 악령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문양이 새겨진 동전, 버클 등이 사용되었고 줄무늬가 의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인에게 소중한 것은 겨우내 암흑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름의 긴 햇빛으로, 태양은 소중히 아끼고 추구하려는 것으로, 이교도였던 그들의 조상은 태양신을 숭배하였고 가까이에 모시려고 하였다.³⁰⁾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큰 은브로치를 몸에 지니는 것이 민속의상에서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여성의상은 5개국 모두 블라우스·보디스·스커트·에이프런으로 구성되며, 남성은 셔츠·조끼·재킷·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램란드의 의상은 튜닉과 바지의 형태로 스칸디나비아 주변나라의 의상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블라우스의 색상은 모두 흰색으로 공통적이지만 각각의 디자인과 디테일, 장식은 각 나라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디스와 스커트, 에이프런도 색상이나 문양, 형태, 디테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셔츠는 대부분이 흰색의 모직을 주로 사용하였고 스탠딩 칼라가 대부분이며, 은브로치나 작은 스카프로 장식을 하고 있다. 조끼와 재킷은 색상과 문양, 장식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바지는 대부분이 검정색이며, 길이는 무릎길이가 대부분이지만 나라마다 각각 술장식, 브레이드 장식, 풍풍장식 등 전통적인 장식을 하고 있다. 남자의 모자는 캡이나 펠트모자를 주로 착용

하지만 색상과 장식에서 차이가 있다.

쓰개류와 스타킹의 색상, 장신구에서 각 나라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태양을 상징하는 은브로치나 은제 장신구가 많이 사용되었고, 신발은 대부분 은버클 장식이 있는 검정색 구두를 공통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V. 결 론

스칸디나비아의 대부분의 나라는 공통적으로 민속의상을 잘 보존 유지하고 있으며, 정교한 가죽공예와 은수공, 편직과 제직, 그리고 섬세한 자수 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적으로 민속복식을 소중히 간직하며, 종교의식 등이 생활 속에 잔존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에 속하는 나라의 민속의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밀접한 유대관계에서 오는 민속의상에서의 유사점이 많이 있다. 그 예로 여성의상은 블라우스·보디스·스커트·에이프런, 남성은 셔츠·조끼·재킷·바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태양을 상징하는 은브로치나 은제 장신구가 많이 사용되었고, 신발은 대부분 은버클 장식이 있는 검정색 구두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각 나라의 전통에서 오는 차이점도 보이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양과 자수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장신구나 쓰개류에서 나라마다의 차이가 있다. 또한 네크라인이나 칼라의 형태, 프릴 장식, 레이스나 브레이드 장식, 단추나 끈의 사용 등 디테일이나 트리밍에서 각 나라마다 그 방법이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의 집단정체감의 한 표현으로 다른 나라와 구분되고 자기만의 것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셋째, 램란드의 의상은 튜닉과 바지의 형태로 스칸디나비아 주변나라의 의상과 구별되고 있는데, 이는 램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어 문화적, 사회적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 의상의 기초 형태로서의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각 나라의 지역별 의상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대패션 디자인 발상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p.400-408.
2.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85, pp.164-165.
3.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앞글, p.64.
4. 정윤희, 민속의상이 현대의상 디자인에 미친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5. Library of nation SCANDINAVIA,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p.17.
6. Robert Harrold, 유태순 역, 세계의 민속의상, 홍익출판사, 1997, p.19.
7. Robert Harrold, 앞글, p.4.
8. Marion Sichel, Scandinavia, National Costume Reference, 1987, p.38.
9. Library of nation SCANDINAVIA, 앞글, pp.17-53.
10. 변광수, 구래복, 김현옥, 스웨덴/북지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3, pp.55-57.
11. Marion Sichel, 앞글, p.56.
12. Robert Harrold, 앞글, p.18.
13. Marion Sichel, 앞글, pp.30-31.
14. 황춘섭, 세계전통복식사, 수학사, 1995, pp.172-174.
15. James Snowden, 유태순 역, 유럽의 민속의상, 경춘사, 1982, pp.81-83.
16. 앞글, p.76.
17. 田中 薫, 田中千代, 原色世界衣服大鑑, 保育社, 1978, p.16.
18. 황춘섭, 앞글, p.72.
19. Robert Harrold, 앞글, p.23.
20. Marion Sichel, 앞글, pp.21-25.
21. James Snowden, 앞글, p.78.
22. 황춘섭, 앞글, pp.202-203.
23. James Snowden, 앞글, p.87.
24. Marion Sichel, 앞글, p.46.
25. Robert Harrold, 앞글, pp.24-25.
26. Marion Sichel, 앞글, pp.47.
27. R. Turner Wilcox, Folk and Festival Costume of the World, 1989, p.67.
28. Robert Harrold, 앞글, p.19.
29. Robert Harrold, 앞글, p.10.
30. Library of nation SCANDINAVIA, 앞글, p.32.